



© Photo RMN — Daniel Arnaudet, R.C.Ojéda, Hervé Lewandowski

한 · 블 수교 120주년 기념

루브르박물관展

Le paysage dans la peinture occidentale du XVIe au XIXe siècle

LOUVRE



LOUVRE

Annibal Carracci

Antoine Watteau

Camille Corot

Charles-François Daubigny

Claude Gellée Le Lorrain

David II Teniers

Eugène Delacroix

Francesco Guardi

Francisco de Goya y Lucientes

François Boucher

François Gérard et son atelier

François-Edouard Picot

Gaspard Dughet

Jean-Auguste Dominique Ingres

Jean-François Millet

Jean-Honoré Fragonard

John Constable,

Joseph-Mallord William Turner

Laurent de La Hyre

Le Dominiquin

Louis-Joseph Le Lorrain

Nicolas Poussin

Paul Bril

Pierre de Cortone

Richard-Parkes Bonington

Salvator Rosa

Théodore Géricault

Théodore Rousseau

Thomas Gainsboroug

Titien

© Photo RMN – Gérard Blot



Gérard François Pascal Simon • Napoléon Ier en costume de sacre

루브르 박물관 전시

- 전시목적 **한·불 수교 120 주년 대표사업**
- 전시기간 **2006년 10월 24일 - 2007년 3월 18일**
- 전시장소 **국립중앙박물관**
- 전시작품 **프랑스 국립 루브르박물관 베스트 컬렉션**
- 주최 **프랑스 국립 루브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주)SBS**
- 주관 **주한프랑스대사관, (주)지엔씨미디어**





2006년 한·불 수교



루브르박물관의 최초 한국전시

지난 6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획된 최초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품 전시로 노무현대통령과 프랑스 시락대통령이 2005년 1월에 약속한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으로 프랑스 정부가 공인한 국가적 행사의 전시이다.

일본 120만명, 대만 8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 이미 검증된 최고의 루브르박물관 전시

2005년 일본열도를 열광시키며 120만 관람객을 유치한 "19세기 풍경"이란 주제의 일본전시보다도 더 폭 넓고 더 많이 알려진 작품들로 구성되는 전시.

400년 간의 회화를 대표하는 루브르박물관의 엄선된 작품 선정

이번 전시는 미술교과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루브르박물관 소장의 대표적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회화 7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시사상 최다 관람객 예상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전시관람 시장과 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연간 640여 만 명이 관람하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최초 한국전시로 2005년 5개월간 1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일본전시를 비교해 볼 때 이번 한국전의 경우 약 70만 명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0주년 기념 대표 사업

루브르 회화관 수석 학예연구관이 본 전시의 커미셔너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

- * 프랑스 최고의 전성기였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를 망라한 프랑스 국왕들의 컬렉션
- * 프랑스 국보들의 진품 회화작품이 주는 감동
- * 유럽회화의 역사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폭넓은 주제임과 동시에 회화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엿볼 수 있다.
- * 루브르박물관 소장 회화를 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다채로운 관점으로 재구성



François-Edouard Picot • L'Amour et Psyché



Théodore Géricault • Le radeau de la Méduse (1ère esquisse)



Francisco de Goya y Lucientes • Portrait de Mariana Waldstein

“세계 최고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최초 한국展”

LOUVRE

그 규모면에서나 소장품의 질적 측면에서나 세계최고의 박물관으로 공인된
루브르박물관의 40만여 소장작품 중 한국인들이 사랑할 만한 대표작으로 엄선된 작품들이 소개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호화로운 왕궁이 박물관으로 대중들에게 환원된 이래 처음으로,
드디어 한국관람객들에게도 세계 최고급의 예술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이 열린 것이다.

프랑스국왕들의 아끼고 사랑했던 국보들로만 구성

일주일도 다보아도 다 볼 수 없는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루브르박물관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문화예술을 부흥하면서 당대 최고 거장들의 작품을 모으고,
이후 나폴레옹 황제의 거듭된 전승으로 세계의 귀중한 유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전시에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이 직접 소장했던 작품들과
당대 귀족과 최고 거장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전시될 것이다.
또한 미술교과서에서 보았던 믿을 수 없는 걸작들과 각종 미술교양서에 인용되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 6대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최초 국제 특별 기획전”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6대 박물관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 지난 10월 28일 재개관하였다.
이제 세계적인 규모에 걸맞게 활기찬 국제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적인 열린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사업으로 프랑스 정부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루브르박물관 한국전은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최초이자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해외 특별 기획전이 될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전시공간에서의
세계 명화 관람의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